

## 10개국 전문가들, 한반도 평화와 통일 논의

- 국립통일교육원, 「제13회 해외 신진학자 통일아카데미」 개최(7.8.~17.) -

-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7월 8일부터 17일까지,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「제13회 해외 신진학자 통일아카데미」를 개최한다.
  - 이번 프로그램에는 미국, 영국, 일본, 중국, 남아프리카공화국, 스페인, 아르헨티나, 포르투갈 등 10개국에서 11명의 신진학자들이 참가하여, 기후 변화, 국제질서 등 동시대의 핵심 의제를 한반도 문제와 연결해 논의할 예정이다.
  - \* 해외 신진학자 통일아카데미 : 2013년 출범하여, 12년 간 총 336명의 해외 한반도 전문가를 양성하였음.
- 참가자들은 열흘 간 △국제정세와 한반도 통일 환경변화 △글로벌 통일 교육의 미래 △기후 위기와 남북기후협력 등 다양한 특강에 참가한다.
  - 또한, 파주, 연천, 인천 등 통일 관련 현장 견학과 함께,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갖는다.
- 특히, 7월 16일에는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각자의 연구 주제를 공유하며 한반도 평화와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.
  - 이번 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며, 과거 통일아카데미 수료자도 함께 참여하여 국가·세대 간 지식 네트워크의 연속성과 확장 가능성을 보여줄 예정이다.

- 국립통일교육원은 이번 프로그램이 단기 방문에 그치지 않고, 참가자들이 장기적으로도 협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전문가 네트워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국립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	책임자	과 장	오미희 (02-901-7150)
		담당자	사무관	복혜진 (02-901-7036)

